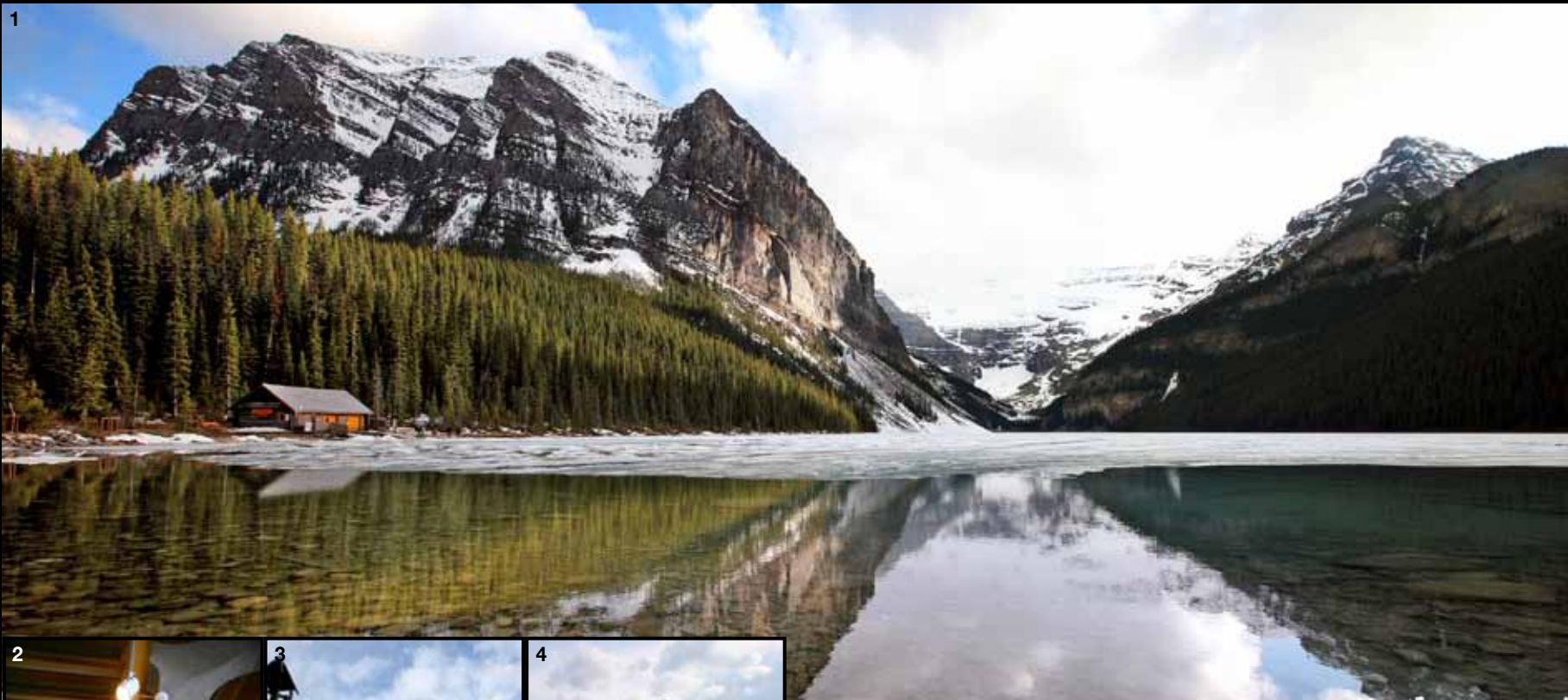




캐나다 로키 산맥 광활한 풍광 품은 장엄한 산줄기

로키 산맥은 캐나다에서 멕시코까지 북아메리카의 서부에 남북으로 약 4천500km에 걸쳐 이어진다. 로키 산맥에서도 가장 장엄하고 아름다운 구간을 꼽으려면 단연 캐나다에 있는 '캐네디언 로키'다. 기암으로 이뤄진 산봉우리, 빙원과 빙하, 호수, 폭포, 동굴과 협곡 등 빼어난 다채로운 풍광이 여행자를 사로잡는다.

글 임동근 기자



1 캐나다인 로키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레이크 루이스, 2 화이트 박물관, 3 밴프 시내 풍경, 4 미네완카 호수, 5 레이크 루이스 스키장.



설산과 호수에 둘러싸인 온천 마을

캐나다 앨버타(Alberta) 주에 있는 밴프(Banff)는 캐나다인 로키의 관문이자 세계적인 휴양지이다. 매혹적인 호수와 폭포, 그림엽서 같은 자태의 봉우리, 자연과 원주민의 삶을 담은 박물관, 온천 등이 있어 로키 여행의 출발지로 손색이 없다. 밴프는 캐스케이드(Cascade), 런들(Rundle), 노케이(Norquay) 등 해발 2천500m 이상의 깎아지른 듯한 고봉에 둘러싸여 있다. 푸른 물이 담긴 호수는 거대한 봉우리의 자태를 수면에 투영하며 평생 추억에 남을 광경을 선물한다. 런들 산 앞에 있는 투 잭 호수(Two Jack Lake)

는 푸른 물빛이 장관이다. 가까이서 보면 바다가 보일 정도로 투명한 호수의 물은 음용수로도 사용된다. 인디언 언어로 '영혼의 호수'라는 뜻을 가진 미네완카(Minewanka) 호수는 밴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호수다. 그리스 신화의 사이렌처럼 인어가 아리따운 목소리로 유혹한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설산(雪山)과 호수의 도시 밴프를 세계적인 휴양지이자 캐나다 최초 국립공원으로 만든 것은 바로 온천이다. 오래전부터 인디언이 삼척을 치유하기 위해 찾았다는 어퍼 핫 스프링스(Upper Hot Springs)는 19세기 후반에 개발됐다. 머리를 차가운 공기 속에 내민 채 온천수에 몸을 담그면 눈 덮인 봉우리가 시야를 한가득 채운다. 유행천으로 류머티즘 치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온천 옆에서는 해발 2천285m에 있는 전망대까지 곤돌라가 운행한다. 전망대에서는 설봉이 사방으로 펼쳐진

기막힌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캐나다인 로키를 주제로 한 사진, 그림, 조각, 책 등이 전시된 화이트 박물관, 인디언의 사냥과 생활방식, 자연을 숭배하는 종교의식 등을 엿볼 수 있는 렉스턴 박물관, 밴프 국립공원의 동물 박제와 나무 조각품을 전시한 밴프 공원 박물관 등도 둘러 볼 만하다.

밴프에서 북서쪽으로 55km 떨어진 레이크 루이스(Lake Louise)는 '캐나

디안 로키의 보석'으로 불리는 곳으로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꼽힌다. 길이 2.4km, 폭 800m 규모 호수는 빙하에서 흘러내린 암석 가루가 빛을 반사해 생기는 에메랄드빛이 환상적이다.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봄과 여름에는 카야킹의 무대로 변신하고, 주변 숲 속에서는 크로스컨트리 스키나 스노슈잉도 즐길 수 있다.

스키와 스노보드 마니아의 천국

앨버타 주에는 스키 리조트가 30개가 넘는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조금 이른 11월 초에 스키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이듬해 5월 말까지 이어진다. 대부분의 스키장은 파우더처럼 부드러운 눈을 갖추고 있어 스키와 스노보드 마니아들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다.

레이크 루이스 스키 리조트가 있는 곳은 매년 9m 이상 눈이 내리는 곳으로, 눈 덮인 봉우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장대한 광경을 감상하며 설원을 달릴 수 있다. 해발 고도 2천637m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으며, 가장 긴 코스는 8km에 이른다.

밴프에서 서쪽으로 15분 거리에 있는 선사인 빌리지(Sunshine Village)는 타운에서 가깝고, 광활한 로키 산맥을 전세를 낸 듯 스키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코스는 총 107개로 초급 20%, 중급 55%, 상급 25%로 나뉜다. 특히 해발 2천100m에는 밴프에서 유일하게 스키를 타고 호텔 문 앞까지 갈 수 있는 선사인 마운틴 로지가 자리하고 있다.

밴프에서 북쪽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마운트 노케이(Mount Norquay) 리조트는 약간 스키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튜브를 타고 눈 쌓인 비탈을 미끄러지는 스노 튜브 파크도 있어 가족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한편 로키 산맥 서쪽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에는 북미 최대의 스키장인 휘슬러(Whistler) 리조트가 자리한다. 밴쿠버에서 북동쪽으로

127km 떨어진 휘슬러 산과 블랙콤(Blackcomb) 산에 부채꼴 모양으로 들어선 리조트에는 슬로프가 약 200개나 있다. 리프트가 닿는 최고 높이는 2천284m이고, 가장 코스가 11km나 된다. 두 봉우리는 '피크 투 피크'(Peak 2 Peak) 곤돌라로 연결돼 있다. 곤돌라를 타면 11분간 4.4km를 이동하며 머리가 쭈뼛거리는 짜릿한 기분을 만끽하며 장엄한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광활한 시원의 빙원

밴프 국립공원과 재스퍼 국립공원 경계에 있는 컬럼비아 아이스필드(Columbia Icefield)는 1만여 년 전 북미 대륙을 덮었던 빙하의 일부가 남은 것으로, 면적은 서울(약 605km) 절반을 넘는 325km, 얼음 두께는 최대 350m에 달한다. 빙하 6개로 이뤄져 있는데 유일하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빙하는 길이 6km, 폭 1km의 애서배스카(Athabasca) 빙하다.

빙하 투어는 밴프에서 북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컬럼비아 아이스필드 디스커버 센터에서 시작한다. 버스로 일정 구간을 오른 후 육중한 바위가 달린 설상차를 갈아타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산길을 오르다 보면 하얀 얼음으로 덮인 빙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탐방객은 설상차를 타고 빙하 위 5km 구간을 돌아볼 수 있는데, 설상차에서 내려 15분 정도 빙하 위를 가닐고, 깨끗한 빙하를 맛보거나 물통에 담아 갈 수도 있다.

디스커버 센터는 빙하와 산맥의 장엄한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Skywalk)도 운영한다. 계곡 위로 280m 높이에 아슬아슬하게 설치된 스카이워크는 바닥이 투명한 유리여서 방문객은 스릴을 느끼며 풍경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스카이워크는 매년 5월

부터 10월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애서배스카 빙하는 지구온난화로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몇 십 년 후에는 완전히 사라질지 모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빙하 투어에 참가하면 빙하가 줄어든 흔적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비경 품은 존스턴 협곡 속으로

밴프 국립공원에는 도보여행 코스가 거의 50개에 달한다. 이 중 인기가 가장 높은 곳은 밴프와 레이크 루이스 중간에 있는 존스턴 협곡(Johnston Canyon). 세차게 흐르는 계곡 물에 석회암이 침식돼 형성된 협곡으로 폭포와 기암, 침엽수림이 이룬 비경이 눈길을 끌고, 누

구라도 쉽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 트레킹 명소가 됐다.

방문객은 대부분 주차장에서 5.4km 떨어진 어퍼(Upper) 폭포까지 왕복하는 코스를 선택한다. 왕복 시간은 평균 2시간 30분. 산길을 걷는 내내 물소리가 귀청을 울리고 침엽수와 이끼가 눈을 시원하게 한다. 반면 겨울에는 얼음 천지로 변한다. 물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차가운 공기 속에 적막감이 감돈다. 눈으로 뒤덮인 산길과 협곡에 매달린 다리를 건너며 얼음과 암석이 어우러지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사슴, 토끼, 늑대, 야생 양이 남겨 놓은 발자국을 찾아보는 것도 흥미롭다. ❶

▶ 여행 정보



항공편, 현지 교통

캐나다인 로키 여행을 위해서는 앨버타 주 남부의 캘거리(Calgary)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 캘거리까지 직항편은 없다. 에어캐나다,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을 이용하면 1회 경유해 갈 수 있다. 현지에서는 렌터카나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이동하거나 여행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기후, 복장

캐나다인 로키에서는 기후 변동이 심하다. 밴프의 12월 평균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이며, 밤에는 영하 14도이다. 겨울에 두꺼운 외투와 신발은 필수다. 고산 지대는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선글라스, 모자를 반드시 챙기도록 한다.



1, 2 애서배스카 빙하 투어.
3 얼음으로 뒤덮인 존스턴 협곡.
4 존스턴 협곡을 걷는 트레커.

